

**2014**  
**수능예측국어 - 비문학편 A/B형 공통(하)**

: language principle by 국어외길

- 전 재수생인데.. 이번에 친게 9평은 아니지만 사설모의에서 매일 몇개씩 틀리던 비문학 다맞췄습니다.. 정말 언어때문에 힘들었던 이과생인데 언어에 희망이 보이려 하네요^^ 9평은 원점수 100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 wowrr
- 현재 이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이 책 보면서 공감도 많이 되고 왠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때 원하는 언어점수 맞도록 할게요! ㅎㅎ - 우리집곰돌이
- 이 책은 평가원의 사고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이렇게 유형별로 문제를 나뉘고, 그것에 대해 분석 해놓은 것은 매우 괜찮은 방법이고, 체화한다면 머리속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개념을 잘 정리하셔서 수능 때까지 가지고 가시면 딱히 손해 보는 것도 없고 얻어갈 것이 많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교재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걸어다니는 평가원
- 현재 상권 유형들 3독하고 하권 문제 풀고 있는데 상당히 재밌게 풀고 있습니다. 정답율 90퍼센트 된거같구 시간절약도 됐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궁금합니다. 끝까지 가면 장담은 못해도 100퍼센트에 수렴하는 정답을 찾을거 같습니다. - 칼슘
- 근데 책 품질 개쩍니다. 작년 책이랑 비교가 안돼요 ㅎㅎ 진짜 책 풀때마다, 평가원이 되는 느낌이에엿ㅋㅋ 빨리 문학편 내주세요. 빨리엿ㅋ. - 수시수시수시
- 문학편 언제쯤 나올까요?? 정말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2년만에 100점을 다시 받아보네요 - 꿀초
- 공부한지 1주일되는 사람인데요. 이 책 정말 좋은거 같아요.  
제가 이과인데 언어만 유독 잘 만나와서 걱정이 많았는데 매일 유형 14개 정독하고 기출 3지문 풀었어요. 오늘 종로 모의 좀 쉬긴했지만 비문학 침으로 다맞았어요~ 풀면서 아 이걸 어떤 유형의 선지이구나 하면서 예전엔 항상 풀어도 찢찢하게 푸는게 많았는데 답에 확신이 생긴달까? 무튼 좋았어요ㅋ 문학편도 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 - 꾸드립
- 저는 현재 현역 고3이며 외길님 책 1회독후 4월모의 봤는데 원점수 84→91 로 올랐어요. 방법은 이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외길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한다면 1등급 수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ky
- 진짜 대박이네요... 이 책이 최대한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면(ㅋㅋ)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가원의 사고를 일관성있게 유형으로 정리해주시니까 원리적용연습만 하면 되네요 ㄷ 이게 언어의 기술보다 훨씬 나은 거 같고 문학편도 정말 기대됩니다!! - 용호상박
- 언어외길님!! 문학편 언제 나오나요???? 저 님 비문학 완전 체화한다음 요번 6월 모평 96 맞음 님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너만큼은 이긴다
- 언어외길님 문학편은 언제 나오나요? 비문학은 정말 자신감이 많이 생겼는데 아직도 문학은 불안불안합니다... 문학에도 비문학처럼 원리대로 적용하면 딱 풀리는 그런게 있나요??  
아 그러구 저 6모 98점 맞았어요! 쓰기어법에서 실수로 하나 나가고... 감사합니다. - 험좌
- 내용은 굉장히 심플하면서 원칙에 충실해서 난잡하지않고 보기에 편하네요. 구성적으로도 텍스트가 책이 작아서 주는 피로감도 없고 여러모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 어둠여우아리
- 수능 예측 언어 1권만 사서 봤었는데요, 이해하기도 편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학습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도 하루정도면 학습도 가능하더군요, 기출이나 EBS에 적용시켜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푸는 속도도 빨라졌다는 것보다, 그보다도 정답률이 상승하는 것이 느껴졌다는 점에서 강추 하고 싶습니다. - 쿠레나이
- 안녕하세요 수예언 비문학편 상권만 보다가 반해서 하권까지 사서 다 본 학생입니다.  
다보고 대성윌레 한 번 보니까 올랐다는게 바로 체감이 되네요 강대 자연 1반 평균이 91점이라는데 듣기 3개 틀리고 90점 받음. 비문학을 다 맞았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있습니다. - 남남남남남

- 언어 1~2 진동학생입니다.  
전 항상 독해력만으로 문제를 읽고 풀려하다보니 컨디션이나 주위상황에 따라 성적에 많은 편차가 있었는데 비문학편 읽고 지문을 완전히 이해안해도 풀 수 있다는 그런심리, 자신감이 생겼네요  
또 평가원의 출제방향, 원리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좀더 신중해지고, 선택지에 집중을 안하고 푸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런 습관도 고쳐졌네요. 이제 고정1등급 나아가 100점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2011 두더지 문제가 아주 짧고 명쾌하게 해결되었어서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문학과 구입했는데 비문학처럼 좋은 내용, 좋은컨텐츠 부탁드립니다~ - vividsunmi
- 정말 외길님은 천재인거 같네요 ㅋㅋㅋㅋ 이런걸 진짜 가격에 비해 언어갈 께 너무 많네요  
솔직히 언기보다 방법론도 엄청 간략하고 바로 점수와 직결될 정도로 진짜 책이 잘 만들어진 거 같아요 문학과 바로 결제합니다 !!!!!!! ㅋㅋ - 언어비문학
- 정말 글쓰기가 존경스러울 정도로 분석이 날카롭습니다.  
처음에 개념설명할 때의 그 몇 줄이, 정말 몇 백 번의 기출분석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글같더군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책을 공부하는 게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 수시수시수시
- 상권만 보고 모의고사 풀었는데 30점 이상 올랐습니다..(6월 모평에 비해서)  
일단 제 성적이 너무 낮기는 했지만..그래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 목표는인서울
- 언어외길을 만난 이후로 언어영역에 엄청난 자신감이 생긴 사람으로써, 댓글을 달아보자면요.  
'항상 근거는 지문에 있다' 그러니 한번 읽을 때 제대로 읽어라. 가 아니라 '항상 근거는 지문에 있다' 따라서 막혔을 때 이상한 머리 굴리지 말고 침착히 지문으로 돌아가라. 가 아닐까요?  
저는 언어외길을 만난 이후로 답은 '반드시' 지문에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거나, 막히거나, 답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 때 다시 지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보니 이제 언어영역이 제게는 재미있는 '틀린 그림찾기' 를 하는 기분이 들고요. 사실 이과생이라 언어에 큰 시간을 투자할 수도 없는데, 외길님 덕분에 시간대비 매우 큰 효과를 받은 것 같습니다. - 버벌진트06
- 외길님 감사합니다~! 6평 땀 3등급 나왔는데 그 이후로 외길님 책보고 겁나 연습했더니 물론 이번 시험이 쉽게 나왔지만ㅡㅡ 20분 남고 만점 받았네요 ㅎㅎ 문제량 지문 번갈아보면서 지문선지 연결법 근거찾는게 진짜 되더라고요! ㅋㅋ 수능때까지도 겁나 연습하겠습니당!!!!!! - mirae115
- 6평 때 점수가 안 좋았는데, 방학 때 예언 보고 다행히 9월엔 100 나왔습니다. ㅎㅎ - 수업후복습
- 배송받고 이책으로 3일 공부해본 수험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학개념어에 관한 책중 최고입니다.  
개념어가 있으면 이 개념어가 기출된 평가원과 수능선지를 총망라함으로써 가장 수능에 적합한 수험서 같습니다. 강추강추^^! - 슈니슈니
- 언어 1등급이었는데 원체 문학이 약하기도 하고, 다른 공부하느라 많이 쳐져서 오르비마켓 보다가 확 끌려서 구매했어요!  
사실 문학 개념어 정리해놓은 시중 교재는 많은데 이렇게 꼼꼼하게 선지와 지문을 직접 대응해서 개념어에 대한 설명까지 함축적으로 정리해놓은 책은 예측언어가 유일무이한듯 합니다. masterpiece인듯. 좋은 책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 - 경희대갈 거야
- 예측언어 비문학편 도움 정말 많이 됐어요... (작년 언어 85 → 올해 언어 100) 제가 문학은 곧 잘 하는데 비문학이 많이 약했거든요...올해 예측언어 사서 기출문제 일주일에 1번씩 돌렸으니까 총 50번 정도 돌린 것 같네요... 그래서 올해 언어는 사실, 교육청, 평가원 등 어떤 시험이든기간에 평균적으로 94~100점은 나오더라고요... 예측언어라는 책도 정말 중요하지만 예측언어에 있는 내용을 적용하면서 기출문제를 수십 번 반복하면서 자기 몸에 체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언어가 이제 걸림돌이 아니어서 올해는 서울대도 노려볼만해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저같이 언어 못하시던 분들도 예언에 있는 내용을 기출에 적용하면서 수백번 수천번 연습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정말 예언책을 접하게 된 건 제 인생에 있어 최고의 행운 중 하나인 것 같네요 ㅎㅎ -연대 내꺼

2014  
수능예측국어 - 비문학편 A/B형 공통(하)

**2014**

**수능예측국어 - 비문학편 A/B형 공통(하)**

: language principle by 국어외길

# 2014 수능예측국어 - 비문학편 A/B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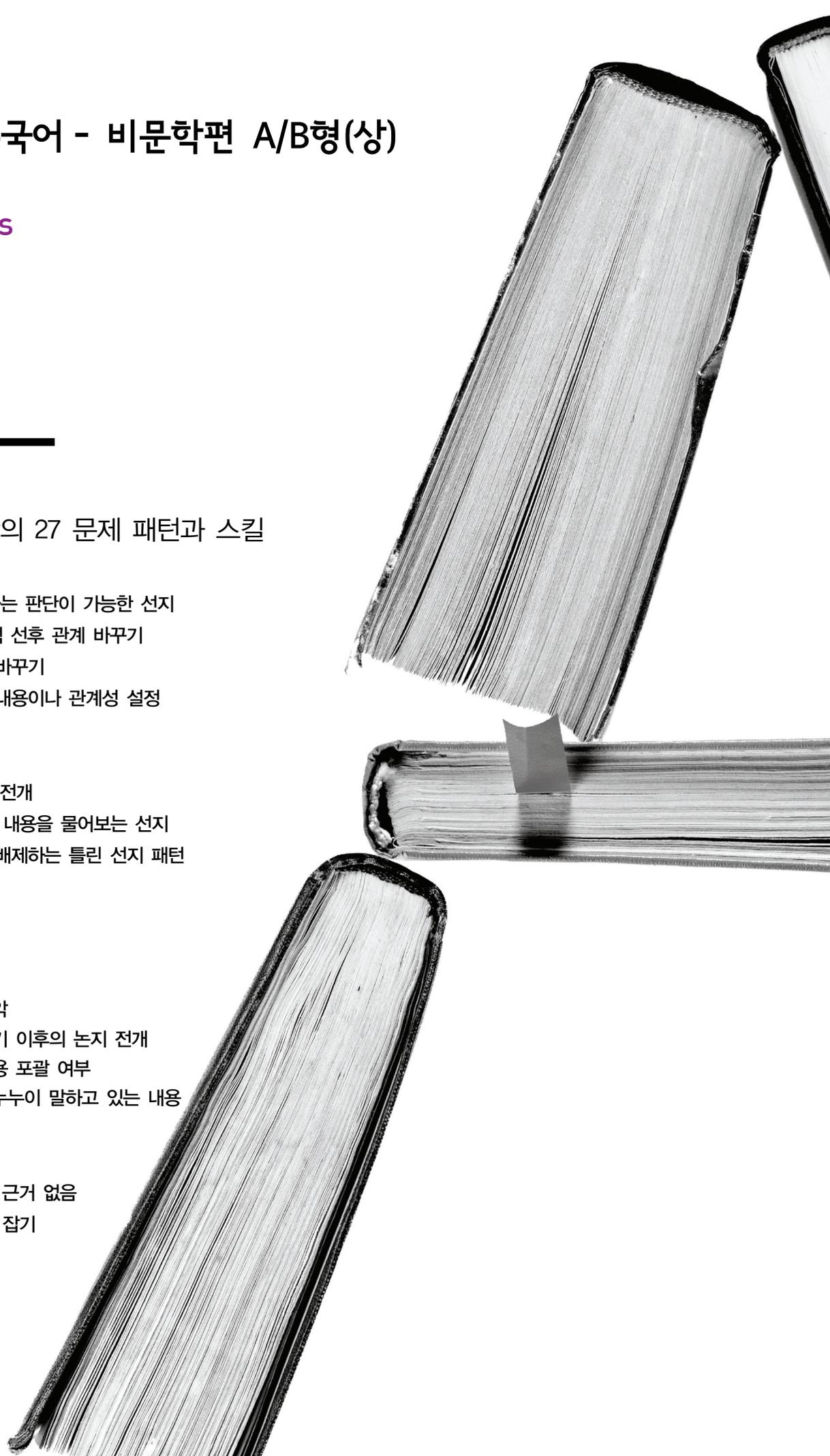
: contents

---

## 개념편

수능 비문학의 27 문제 패턴과 스킬

1. 명백히 틀리다는 판단이 가능한 선지
2. 논리적 시간적 선후 관계 바꾸기
3. 단어나 내용 바꾸기
4. 지문에 없는 내용이나 관계성 설정
5. 일치
6. 사례 연결
7. 글쓰기 전략, 전개
8. 두 개 이상의 내용을 물어보는 선지
9. 다른 내용을 배제하는 틀린 선지 패턴
10. 명제의 이
11. 개념 요구
12. 주제 연결
  - (1) 주제문
  - (2) 논점 파악
  - (3) 문제 제기 이후의 논지 전개
  - (4) 전체 내용 포괄 여부
  - (5) 글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는 내용
13. 근거 추론
14. 문맥적 의미
15. 판단 범위에 근거 없음
16. 대응 포인트 잡기



- 
17. 연결 고리
  18. 다른 범주 간의 연결
  19.  $A \rightarrow \text{not } B$  반론
  20.  $\text{not } A \rightarrow B$  반론
  21. 단순 반대 형태의 반론
  22. 심화 학습
  23. 비교급 형태의 틀린 선지 패턴
  24. 기준, 관점의 편향성 비판
  25. 검색어 설정
    - (1) 숫자, 영어, 기호 활용 스킬
    - (2) 긴 단어나 구절 활용 스킬
    - (3) 가장 적게 언급된 단어 활용 스킬
    - (4) 보거나 밀출된 내용 활용 스킬
  26. 핵심 기억 독해
  27. 위치 기억 독해

---

## 문제편

비문학 27 패턴과 지문-선지 일대일 연결법  
으로 역대 비문학(독서) 기출 문제 해결하기

1. 2014 예비 시행 A/B형
2. 2014 6월 모의평가 A/B형
3. 2014 9월 모의평가 A/B형
4. 2014 수능 A/B형
5. 2013 6월 모의평가
6. 2013 9월 모의평가
7. 2013 수능
8. 2012 6월 모의평가
9. 2012 9월 모의평가
10. 2012 수능

# 2014

## 수능예측국어 - 비문학편 A/B형 공통(하)

: contents

9

---

### 문제편

비문학 27 패턴과 지문-선지 일대일 연결법  
으로 역대 비문학(독서) 기출 문제 해결하기

1. 2011 6월 모의평가
2. 2011 9월 모의평가
3. 2011 수능
4. 2010 6월 모의평가
5. 2010 9월 모의평가
6. 2010 수능
7. 2009 6월 모의평가
8. 2009 9월 모의평가
9. 2009 수능
10. 2008 수능
11. 2007 수능
12. 2006 수능
13. 2005 수능

